

2023년 [하계] 해외어학연수 설문지

학과: 경영학과 이름: 이지원

2023년 해외 어학연수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이 느낀 바를 작성해 주시면 차후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빠짐없이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어학연수에 참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영어실력 향상을 위해서 ②취업을 위해서 ③목적없이 참가 ④기타(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2. 어학연수 이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토익특별반, 토익사관학교 등 교육과정에 계속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3. 이번 해외 어학연수 과정을 친구나 선후배에게 얼마나 추천하시겠습니까?

①아주 많이 ②많이 ③보통 ④안함

☐ 전체 반응도

구분	매우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낮다	기타
해외연수 전반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 연수 만족도

구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어떤점이...
연수국가	√					
교육 프로그램			√			
주말 프로그램		√				
강사진		√				
기숙사	√					
강의실	√					
식사		√				
편의시설		√				
기타()		√				

☐ 교육생 의견 (*반드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소감 및 건의사항	[좋았던점]
	-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계획되어 있어 좋았습니다.
	- 홈스테이 위치 및 호스트분들이 좋았습니다.
	- 팀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점이 좋았습니다.
	[나빴던점]
	- 한국인 학생들로만 반이 구성되어 아쉬웠습니다.
	- 가끔 저녁 늦게 이벤트가 끝났는데 다음날 일찍 출발해야 하는 이벤트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것만은 꼭 개선해 주세요]
	- 다른 국가 학생들과 함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비행기 시간을 설정할 때 새벽에 출발해야 하는 시각이 아닌 아침 7-8시 정도에 출발할 수 있는 비행기 시간으로 설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스트분들도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 성실히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캐나다 어학연수 소감문>

	이름: 이지원 학과: 경영학과	학번: 202022023
소감문	단순히 취업만을 목적으로 영어를 공부했었다. 토익 점수만 잘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토익 영단어를 외우고 토익 문제풀이 스킬만 학습해왔다. 하지만 실제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살아보니 토익 공부로는 절대 채워질 수 없는 한계를 느끼게 되었던 것 같다. 특히 실제 원어민이 말하는 속도는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빠르고 때로는 특정 국가의 억양이 섞이면서 다시 물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순간도 존재해 당혹스러운 순간들이 많았다. 그래서 만약 내가 더 영어를 잘했다면 지금 이 대화를 정확하게 이해해 농담에도 웃고 의사표현 또한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어학연수를 통해 영어를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특히 홈스테이를 하면서 부족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 호스트분들께서 나의 생각을 물어볼 때, 한국어를 하는 것처럼 나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었지만 단어도 생각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고민하는 순간들이 당혹스러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또한, 질문을 100% 이해하는 순간보다 60%만 이해하는 순간이 많아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영어에 익숙해져간다는 느낌을 받았다. 전에는 잘 들리지 않았던 것들도 들리게 되고 학교 및 홈스테이에서 새로운 표현들을 배우며 처음보다 점점 더 발전해가는 나를 만날 수 있었던 것 같다. 더불어,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은 Dragon's den과 memory book 활동을 했던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모두 팀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었는데 나를 제외한 나머지 팀원들은 모두 선문대학교 학생들이었다. 타 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어서 좋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 내가 속한 팀이 Dragon's den winners가 되어 기뻐했던 것 같다. PPT를 준비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긴장되기도 하였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주고 조언해준 끝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아 잊지 못할 추억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공부뿐만 아니라 캐나다에 대해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았다. 한국과는 다른 문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풍경, 조형물 등등 이벤트 시간을 통해 학생이기도 하지만 관광객으로서의 느낌도 받을 수 있어 좋았다. 한달이라는 시간이 되게 길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빠르게 지나가버린 것 같다. 나는 한달이라는 시간동안 나라는 사람이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잘 해보지 않았던 것도 캐나다에서 도전하기도 하였고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영어 공부는 단순히 취업만을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구나를 가장 많이 깨닫게 되었던 것 같다. 따라서 나는 앞으로 나 자신을 위한 영어 공부를 시작하려고 한다. 원하는 것을 얻고 이해하기 위해 의무가 아닌, 진정한 나를 위한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	

<활동사진>

